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3면	“청렴한 강원 만들 기자치도의회가 앞장!”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의원총회 '청렴한 강원만들기' 앞장 결의	2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2024 의원총회·청렴결의대회 개최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원총회’ 열려...청렴도 향상 추진	4
江原日報	08면	18개 시·군 출향인 "청룡의 힘찬 기운받고 강원 발전 이끌..."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 8건 다음 달 도의회 상정	6
강원도민일보	06면	국힘 강원도당 당직 개편... 전국위원에 김희철·임미선	7
江原日報	23면	강원도우회 정기총회 “도정 지속발전 기원”	7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	7
江原日報	23면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강릉)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8
강원도민일보	01면	춘천·원주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 수도권시대 온다	9
강원도민일보	02면	'GTX 사업비 30% 부담' 지자체간 분담금 줄다리기 불가피	9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기폭제 역할 기대"	10
강원도민일보	11면	'GTX-B 연장' 춘천시 재정부담 최소화 관건	10
강원도민일보	18면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철원 '직탕 은행나무길' 관광 명소화 추진	11
江原日報	22면	산천어축제 주말 150만명 돌파 예고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평창올림픽 시설 지속 활용 기대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급행 GTX 원주·김포 동시 착공을	13
江原日報	25면	[사설] GTX 노선 춘천·원주 연장, 지역 발전 새 이정표	14
江原日報	25면	[사설] 선거구 획정 지연,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행위	15

“청렴한 강원 만들기 자치도의회가 앞장!”

의원 총회·청렴결의대회 개최

“청렴한 강원 만들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호텔 인터볼고 원주에서 의원 총회와 함께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청렴한 도의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종욱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중위급(3등급) 이상, 내년도 상위권(1등급) 달성을 목표로 특별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전국 의회 종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25일 호텔인터볼고 원주에서 의원총회 및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더 청렴한 의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에서 도의회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의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미반영된 의회자치권 특례안을 비롯해 18개 시·군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내빈들은 도의회의 협력과 성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12년 전 박상수 전 도의장이 동서고속철·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해야 하고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모두 이뤄졌고 청소년올림픽까지 진행 중”이라며 “12년 후 반도체, 바

이오산업이 성공하고, 자율주행차도 굴러가는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도의회가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청소년올림픽에서 소재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최신 설비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믿고 지원해 준 덕분”이라며 “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 덕에 도교육청도 학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는 데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정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역할과 활약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활약을 당부했고, 이재용 원주시의장은 “광역의회와 18개 기초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을 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의원총회 및 청렴결의대회가 25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다. 이자리엔 권혁열 도의회의 의장 등 도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도 교육감,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강원도·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의원총회 '청렴한 강원만들기' 앞장 결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청렴한 강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원들은 25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2024년도 의원총회 및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 심영곤 운영위원장과 김종욱 도의회 사무처장이 낭독한 청렴실천 결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을 것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을 하지 않을 것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혁열 도의회의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문가 유형의 의정활동 평가는 가장 높았으나,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가장 낮았

다"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도 교육감,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강원도·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권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의회에서 서로 간 존중과 위상이 무너지는 등 소통과 화합, 배려와 단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한 뒤 "사무처 공직자와 의원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의회 위상을 강화하자"고 했다.

김지사는 "12년 전 박상수 당시 의장이 동서고속철과 오색케이블카 착공등을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12년 뒤에 반도체, 바이오산업이 성공하는 그런 여정에 도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봅슬레이 소재환(상지대관령고) 선수의 2024강원대회 금메달 획득을 언급하며 "학생 한명을 위해 지난해 썰매 예산 1억원을 올렸다"며 "체력, 예능, 재능을 키워주는 게 학력이다. 도 교육청의 정책을 응원해달라"고 했다.

원 시장은 "9대 도의원 당시 저희도 청렴결의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잘 통과해서 오늘 이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설화

G1방송

2024년 01월 25일 (목)

강원

강원자치도의회, 2024 의원총회·청렴결의대회 개최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는 오늘(25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2024년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의사운영 계획과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혁열 의장은 지난해 운영을 결산하고 "의회 역량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 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총회에서는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청렴 퍼포먼스와 청렴 서약식·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청렴한 의회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KBS 춘천

2024년 01월 25일 (목)

강원

‘강원도의원총회’ 열려...청렴도 향상 추진



9 ‘강원도의원총회’ 열려...청렴도 향상 추진

KBS뉴스 뉴스 SNS 계정 : www.facebook.com/cckbsnews

강원도의회는 오늘(25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올해 '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 의정 시책과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과 전문성 확대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江原日報

18개 시·군 출향인 “청룡의 힘찬 기운받고 강원 발전 이끌자”

2024년 01월 26일 (금)

포토뉴스 08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화성

◇중양회=김전수 중앙회 회장, 홍장표 수석부회장, 윤명식 특임부회장, 장대수 사무총장, 김영자 사무처장

◇고문=이태규 송암(스콜)주 대표이사, 김동호 강릉국제경제제 이사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총회장, 이영만 전 재무부장관, 조승근 혁신회법인 대표, 홍명기 전 대한노인신문사 상임부회장, 이종철 수원미래포럼 회장, 최준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전진표 한국인우회 회장

◇국회의원=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박정하, 노용호

◇공직자 및 유관기관장=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유병국 강원일보 서울본부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이수희 강릉구청장, 조장진 G1방송 회장, 전종철 G1방송 대표이사, 김중서 강원도민일보회장, 황학수 전 국회의원, 오홍수 흥천부군수, 김형진 횡성부군수, 지기선 화천부군수, 주남석 양구부군수, 전갑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김경남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윤관락 민간협력팀장, 이재정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도료팀장, 임영민 고용노동기부금담당,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 고광남 추진단 부회장, 김진선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이승현 서울본부 부본부장, 임승곤 대외협력과장, 박혜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협력관, 강동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협력관, 정은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협력관, 최성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협력관, 김경성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협력관, 김상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협력관, 김용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협력관, 서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협력관, 김준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 협력관, 권오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협력관, 정준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협력관

◇2023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자=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권혁승 백교료문화산업협회 이사장

◇특별초청=정준호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변화혁신협회장, 이금선 법국민주진협의회 부회장, 김기덕 DB그룹 명예회장, 안정희 법국민주진협의회 부회장, 한세철 법국민주진협의회 부회장, 이상배 법국민주진협의회 특별보좌관, 신원철 법국민주진협회화추진단장, 최명숙 법국민주진협회의 사무국장, 김상성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보영 대한민국(도)민회연합회 회장, 하재대 대구경북(도)민회 특별 부회장, 권원오 대한민국(도)민회 상임 부회장, 강윤성 광주전남(도)민회 회장, 황상무 대통령실(민)사화서, 김홍광 대통령실(민)사화서 보좌관, 박영봉 청운계 이사장, 정창호 백교료문화산업협회 이사, 김상원 백교료문화산업협회 이사, 박선자 백교료문화산업협회 이사, 김진태 백교료문화산업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최양희 한민대 총장, 박경국 경인신문 대표, 양희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상임부회장=이성규 전 고양도민회장, 신춘우 휴강원산업 대표, 최윤길 성주유학 대표이사, 김미림 용인도민회장, 김중배 전 울산도민회장, 서민봉 인천도민회장, 유종국 유술로로 대표이사, 윤경만 하남도민회장, 이동석 미래문소트럼 회장, 최재희 고성군민회장, 한재영 횡성군민회장

◇감사=박영주 BAB코리아 그룹 회장

◇집행위원=원근식 유네스코 회장, 권영준 신영산업 대표이사, 김덕기 브라운사(제)주 회장, 강광원 유한REIF 대표이사, 권혁중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사, 이호 (사)한국교육색상산업본부 이사장, 지승연 SNC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혜선 유한제약산업건설 회장, 차명준 조문무역 대표, 김도원 유한제약가정재 대표이사, 정경화 SNT윙스(스)주 대표이사

◇특별=황광수 APM대표, 최광규 삼보건설, 전진표 공경(보)안전총연합회

◇부회장=전상식 현진에비빌 회장, 김영성 yes21 청소년재단 대표, 조일성 (사)무궁화봉사회 총재, 김문기 메디칼레스 인문세종병원 정제식장 상무, 변대현 남양주(주) 회장, 이세한 글로벌네트와임의 협력대상 의장, 최오길 민원대 대표이사, 주수희 해우 GLS 사장, 김중목 한국구급중응급의 명장, 채남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장경옥 미국메디칼웨이 국제협력관, 지영근 삼성물산 부사장

◇이사는=박자영 (유정)전지 대표이사, 전정희 작가, 우덕수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 상임 부회장, 권중국 사립고려도민회 이사, 김중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최정현 수석회장, 박정환 전 하계중학교 교장, 송재승 유니스사원 대표이사

◇시도민회=강릉구도민회 최규연 회장 등 4명, 중랑구도민회 권혁길 수석부회장 등 8명, 은평구도민회 박성원 초대회장 등 5명, 강릉시민회 박용인 회장 등 19명, 속초시민회 박윤중 회장 등 8명, 철원군민회 남상국 회장 등 18명, 횡성군민회 유광근 도민회중앙회 고문 등 30명, 고성군민회 서경진 사무총장 등 9명, 태백시민회 박영민 회장 등 20명, 화천군민회 권순애 회장 등 11명, 춘천시민회 류영근 회장 등 20명, 영월군민회 안병민 명예회장 등 14명, 삼척시민회 김석준 회장 등 24명, 평창군민회 조재철 회장 등 9명, 동해시민회 정명교 회장 등 8명, 원주시민회 김용태 고문 등 23명, 양구군민회 강갑선 회장 등 3명, 양양군민회 노승익 회장 등 16명, 홍천군민회 문원국 회장 등 9명, 정선군민회 진범식 회장 등 19명, 인제군민회 최원섭 상임부회장 등 9명, 평안군민회 김대섭 직전회장 등 3명, 군포도민회 홍영호 직전회장, 공주도민회 신재승 회장 등 4명, 연천도민회 이상수 회장 등 5명, 구리도민회 김진수 회장 등 6명, 의정부도민회 장순중 회장 등 4명, 안산도민회 박재호 상임고문 등 5명, 포항도민회 최동선 상임고문회장 등 5명, 김포도민회 나갑수 회장 등 5명, 하남도민회 강창현 명예회장 등 5명, 이천도민회 변재문 회장 등 3명, 제주시도민회 정종철 회장 등 3명, 포천도민회 석택의 회장 등 5명, 전주시도민회 신정순 회장 등 5명, 용인도민회 임홍식 수석부회장 등 8명, 오산도민회 김영광 회장 등 5명, 안양도민회 허영미 회장 등 4명, 과천시도민회 이상호 회장 등 3명, 고양도민회 고진경 회장 등 9명, 울산도민회 상남내 수석부회장 등 3명, 부산도민회 라운희 회장 등 3명, 통영도민회 정승수 회장 등 6명, 양주도민회 신범선 회장 등 6명, 광명도민회 박석수 회장 등 3명, 아산도민회 홍성학 회장 등 2명, 경기도광주도민회 정종원 회장 등 4명, 남양주도민회 박범오 회장 등 8명, 부천도민회 천산은 회장 등 7명, 대관저도민회 최현일 회장 등 11명, 화성도민회 홍성호 회장 등 6명, 여주도민회 이윤호 회장 등 9명, 수원도민회 이호영 회장 등 4명, 서산시도민회 엄용기 회장 등 4명, 상남도민회 전필국 회장 등 6명



영월



평창



정선



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강릉

KBS 춘천

2024년 01월 25일 (목)

강원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 8건 다음 달 도의회 상정



강원도는 다음 달(2월) 개최하는 강원도의회에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들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조례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과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산림이용 진흥지구 운영 조례안 등 8개입니다.

이 조례들은 올해 6월 8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강원도민일보

국힘 강원도당 당직 개편...전국위원에 김희철·임미선

송주현 수석대변인 임명

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당이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개편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26일 오후 2시 춘천 도당사에서 열린다.

25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박정하)에 따르면 신규 임용 당직자는 △김희철·임미선 전국위원 △전수원 중앙위도연합회장 △안경호 청년위원장 △양숙희 여성위원장 △심영곤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박기영 대외협력위원

2024년 01월 26일 (금)

종합 06면

장 △안영일 홍보자문위원장 △김용화 도민소통위원장 △송주현 수석대변인 등 10명이다. 도당은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 “4월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은 선거 지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결집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1월 26일 (금)

인물 23면



◇2024 강원도우회(회장: 이재호) 정기총회가 25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우회 정기총회 “도정 지속발전 기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에 힘을 보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서기관(과장급) 이상 퇴직자 모임인 강원도우회가 25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김남규·최정부·이방웅 전 회장, 김길수 강원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호 강원도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2024 성공 등 강원도정의 발전이 멈추지 않고 힘차게 지속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온 김진태 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아프리카 튀니지 선수 3명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새 역사가 쓰이고 있다”면서 “모두 도우회 여러분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남겨준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신형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지역 17면



화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 2024년1분기 화천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25일 화천소방서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최임수 화천소방서장,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군의원들을 비롯해 신임 박복녀 하남여성대장, 이장호 사내남성대장, 성미자 사내여성대장, 김창주 다목지역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6일 (금)

인물동정 23면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



장(강릉)은 27일

오전 11시 강릉

명륜고 본관 1층

멀티비전실에서

열리는 명륜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

사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강릉) 도의장은 27일 오전 11시 강릉 명륜고 본관 1층 멀티비전실에서 열리는 명륜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대전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정기총회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인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인제군노인회 산불방지 노인감시단 발대식에 참석.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30분 춘천시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신북읍 번영회 정기총회에 참석.

류인출(원주)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6일 오후 3시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리는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 참석.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 평창군 진부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진부농협 제63기 정기총회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26일 오후 6시30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소양초 총동문회 신년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2024년 01월 26일 (금)

강원도민일보

종합 01면

춘천·원주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 수도권시대 온다

윤대통령·국토부 구상 발표

GTX-B 3월 착공 춘천까지 연장

D선 신설 인천서 원주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춘천·원주가 GTX광역 철도망으로 연결되면서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GTX시대를 열겠다.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C선은 오늘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하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오는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추진한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선과 C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예산 없이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하고 B선 연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D·E·F선 신설도 추진한다. D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와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고, E선은 인천에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A·F선 모두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GTX로 연결되면 강원·충청까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이 형성돼 경제지형이 바뀌고 신규 주택부지가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

지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천대입구에서 경춘선 마석역을 연결하는 GTX-B선은 오는 3월 착공해 2030년 완공된다. 개통시 청량리역-마석역이동이 가장 75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 B선 연장 사업으로 마석역-춘천역 55.7km 구간을 연결한다. 지자체 비용 부담을 협의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인천·팔당·원주를 연결하는 D선 신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가운데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동시에 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권은 용문-홍천 철도 건설이 오는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구체화된다. 2022년 착공한 춘천-속초 고속화 전철은 2027년 개통된다. 지난 12일 공사에 들어간 여주-원주 전철은 2028년 개통,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남궁형성 ▶관련기사 2·11면

2024년 01월 26일 (금)

강원도민일보

종합 02면

'GTX 사업비 30% 부담' 지자체간 분담금 줄다리기 불가피

철도 노선 관통 광역·기초단체 비용 분담률 협의 등 난관 예고
도·춘천시 각 300억원 이상 예상
지방재정 상황 사업 성패 변수

춘천·원주까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강원 시대에 탄력이 붙었지만 '전체 사업비 30% 지자체 부담' 방침으로 열악한 강원 재정 공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각 노선은 경기도 각 지자체 구간과 연결돼 사업비 부담을 두고선 지자체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 GTX-B

GTX-B 춘천 연장 노선은 기존 인천대입구~마석역에 이어 가평역과 춘천역(55.7km)을 잇는 가운데 연장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4238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을 고려하면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강원도·경기도·가평군·춘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30%(1271억 4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광역·기초지자체간 부담은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300억원 이상씩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 GTX-D

GTX-D 원주 연장 노선의 전체 사업비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D선 원주 연장은 D노선인 수서광주선과 경강선을 공용으로 이용하며,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GTX-B 춘천 연장 노선보다 연장이 27.4km 길다.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B

연장 노선 사업비를 훌쩍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 문제는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GTX-B, GTX-D 노선의 강원 연장은 강원도 재정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산면제까지 받았지만 4년 사이에 사업비가 56%(6155억원)나 급증,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각역사의 개수 등을 포함해 일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종합 02면

김 지사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기폭제 역할 기대"

도정치권 환영 사업 지원 약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계획과 관련, 김진태(사진) 도지사는 25일 "약속을 지켜주신 대통령께,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GTX-B 노선춘천연장, GTX-D노선원주연장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데기폭제역할을할것"이라고했다. GTX-B춘천연장은윤 대통령의강



원SOC공약이자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사업 반영을 위해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사업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김 지사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타 통과 등 앞으로의 절차를 전략적으로 챙겨

나가며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경쟁력을높여나가겠다"고강조했다.

원강수원주시장은 "향후여주-원주 복선전철에 이어 GTX-D노선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이 편리하게원주를찾고, 36만 원주시민도 쉽게수도권으로 오갈 수 있다"며 "원주의 수도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도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음)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GTX-B노선 춘천연

장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한 끝에 이뤄진 성과라 보람을 느낀다"고했고,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감전·당협·위원장)의원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춘천시와 함께 신속한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다. 원주연장 노선을 추진했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완공까지 막힘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겠다"고했다.

국민의힘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공약"이 이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강조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환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다. 송기현(원주·을) 의원은 "GTX연결시 사실상 원주는 수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연장을 촉구해왔고, 춘천의 교통혁명이 곧 균형발전임을 각인시킨 성과"라고했다. 이세훈·권해민·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지역 11면

'GTX-B 연장' 춘천시 재정부담 최소화 관건

총사업비 최대 4238억원 추산
국가철도망 반영 땀 국비 지원
가평군과 지방비 배분도 과제

GTX-B 춘천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4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배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대한 총사업비는 최대 4238억원으로 추산된다. GTX-B 노선의 전체 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

당 사업이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최대 7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30%인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배분을 놓고 가평군과의 협의가 남아있다.

춘천시는 춘천이 GTX-B 노선의 시·중착점임을 감안, 차량기지를 제공하고 해당 금액 만큼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철도공단

이 철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차량기지를 조성하고 지방비 부담 규모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춘천시 설명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평은 통과지역이지만 춘천은 시·중착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기지 제공을 통해 시 부담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가 적절한 부담을 해야겠지만 재정 여건상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해 시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했다.

GTX-B 춘천 연장으로 춘천은

ITX-청춘, 동서고속철까지 열차 3대를 확보, 향상된 교통접근성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춘천시는 이번 연장이 기업혁신파크와 캠퍼지 도시 재생 혁신지구 선정, 교육발전특구 등 시 역점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끊임없이 대화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춘천이 수도권 도시가 된 만큼 수도권의 이점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했다.

오세현 tpq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지역 18면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타워 등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DMZ 지구 등 테마 구역 조성
함명준 군수 "체계적 관광지 도약"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고시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된 부지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로 지난 반세기 동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았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통일전망대와 협력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및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의 조성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군은 이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이곳이 생태안보교육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안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시설(통일전망타워, 휴게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 '안보교육지구'와 'DMZ 생태지구'로 구역을 나눠 각 테마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최근 7년간 연평균 58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이다. 접경지역의 DMZ 전망대 중 금강산과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경기 파주시 다음으로 방문객수가 많다.

함명준 군수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한반도 안보 관광 동부축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선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지역 17면

철원 '직탕 은행나무길' 관광 명소화 추진

군, 관광객 유입 산책로 조성
상반기 착공 7억5000만원 투입
포토존 설치 가을단풍 추억 선사

철원군은 올해 직탕폭포 인근 은행나무길 명소화를 추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인도 및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직탕 은행나무길은 1990년대 동송읍 장흥리에 처음 조성돼 마을 주민 및 철원군 녹색성장과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되었다.



철원군 동송읍 직탕폭포 일대에는 은행나무길 명소화를 위한 인도 및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각 계절마다 특색이 있는 은행나무길이지만 특히 단풍이 만연한 가을 철 직탕 은행나무길은 노란 은행잎이 주변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다.

이에 철원군은 직탕 은행나무길 명소화를 추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은행나무의 추억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직탕관광지 은행나무길은 약 700m길이의 도로 양편으로 30년생 아름다운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식재돼 있으며 인도가 없는 상태이다.

철원군은 올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탕 은행나무길에 인도와 포토존을 설치, 은행나무 명소길

을 조성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시시설계 용역 단계인 은행나무길 명소화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직탕관광지 은행나무길 명소화와 함께 김화읍 화강변 12km 구간의 느티나무 삼십리길에 대한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석정 꽃밭과 은하수교 등이 연계된 관광벨트를 조성,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2024년 01월 26일 (금)

江原日報

지역 22면

산천어축제 주말 150만명 돌파 예고

화천군 28일 폐막 앞두고 관광객 유치 전력투구
경제효과 1,300억 추산 외국인 방문도 줄이어

【화천】15년간 ‘밀리언 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화천산천어축제가 이번 주말 ‘150만명 돌파’라는 새로운 흥행 기록을 예고하고 있다.

화천군과 (재)나라는 오는 28일 축제 폐막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전력투구하면서 누적 관광객 150만명 돌파에 도

전한다. 축제 20일째인 25일 기준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은 125만여명에 이른다.

최근 한파로 결빙 상태가 최상의 조건을 보이고 있는 데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대규모 인파가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군이 몇년 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축제의 경제효과가 1,300억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있는 만큼 축제 마지막까지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군은 축제장에 대거 관광객이 찾을 것에 대비, 얼음낚시 천공 규격을 조정해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축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타고 온 대형 관광버스가 줄

지어 서 있으며 외국인 낚시터도 크게 붐비고 있다.

선등거리에서는 27일 오후 6시부터 ‘선등거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폐막식은 28일 오후 6시 얼음이성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최문순 군수는 “이번 주말이 겨울축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관광객에게 녹지 않는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사설/칼럼 19면

평창올림픽 시설 지속 활용 기대

-봅슬레이 스키 월드컵 등 개최로 활로 찾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봅슬레이 스키 월드컵과 아시안 시리즈대회가 열릴 전망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에 IBSF(봅슬레이 스키 월드컵 연맹) 아시아 지사와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해, 시설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IBSF 등 관계기관은 최근 협약을 체결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썰매 종목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18동계 올림픽 이후 마땅한 사용방안을 찾지 못하며 적자를 면치 못했던 시설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 시리즈 대회 개최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인 지난 23일 ‘IBSF 월드컵 및 아시안컵 시리즈 유치, IBSF 아카데미 및 아시아 지사 평창 유치’ 협약을 통해 가시화됐습니다. 협약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인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연 1회 10개국 1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IBSF 월드컵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개국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아시안컵 시리즈 대회를 연 4회 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에 IBSF 아시아 지사

및 IBSF 인증 봅슬레이 스키 월드컵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의 모범이 될 전망이다. 도내 올림픽 경기장은 총 6곳이 있지만 마땅한 수익 사업이 없어 연간 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올림픽 경기장 운영비는 총 27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450명 이상이 평창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경기장 대관료 등 연간 2억원의 운영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레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올림픽 경기장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와 아카데미 설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대회가 끝난 뒤 비어 있던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올림픽 경기장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구촌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위상을 굳히는 한편, 국내외 대회를 꾸준히 유치해 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 동계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기대할 만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6일 (금)

사설/칼럼 19면

급행 GTX 원주·김포 동시 착공을

-국토부, 춘천 노선 연장 비용 지자체 떠넘겨선 안돼

춘천과 원주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각기 B와 D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1월 25일) 윤 대통령 교통 분야민생토론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노선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철도교통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사안이어서 반갑기는 하나, 춘천과 원주에 역사가 언제 들어서면서 완공될지 시점 기약이 없는 것이어서 '희망고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GTX A·B·C노선은 기존 안에서 연장하고, D·E·F노선은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노선에 속하는 원주는 김포에서 출발, 서울을 관통해 수서를 거쳐 연결됩니다. 사업 일정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원주가 포함된 2단계 구간은 실상 계획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완공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35년 이후에나 착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주 신설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간건설사 컨소시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사에서 수십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요금은 국가재정 사업에 의해 건설된 곳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강원도에서 미시령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업체 수익 보장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B노선이 연장되는 춘천의 경우 건설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내세웠습니다. 광복 이후 철도정책은 대도시 및 서울~부산 축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형성돼왔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부 강원권과 전남, 경기 북부는 철도서비스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입니다. 고속철도가 집중 건설된 지난 10여년간 흐름을 보면 여전히 경북권과 충청권의 철도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 형평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행 및 고속철도는 경제 파급력이 일반철도에 비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원주 D노선 역시 시점과 종점인 김포와 원주에서 동시 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당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6일 (금)

사설/칼럼 25면

GTX 노선 춘천·원주 연장, 지역 발전 새 이정표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GTX-B 노선은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한다. 또 새로 건설하는 이른바 'GTX 2기' 노선 중 GTX-D 노선은 잠실·강동·교산을 지나는 '팔당 종점'과 모란·이천을 지나는 '원주 종점'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공약해 온 현안이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지역 숙원이 아닌가. 조기 착공과 개통이 이뤄진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다.

GTX-B 춘천 연장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12~1.27로 측정돼 경제성이 입증됐다. 강원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사업은 ITX-춘천의 운행 횟수 감소 및 열차 지연을 막고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강원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도 꼭 필요하다. 도와 춘천시는 동서고속철도와 GTX-B를 연

계해 주거·상업·업무시설, R&D 연구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 미래형 콤팩트시티로 만든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그러나 신속한 개통을 위한 막대한 경비 부담은 향후 과제다. 정부는 GTX-A·B·C 노선의 연장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지자체가 GTX 노선 연장 사업비를 부담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통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GTX-D 원주 연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토부가 GTX-A 대신 GTX-D의 원주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확정하지 않아 원주권 연장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반가운 일이다. 원주는 이미 여주~원주북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가 이번에 GTX-D 원주 연장까지 공개되면서 사통팔달의 철도망이 놓이게 됐다.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완성, 영동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 수도권·강원권·충북권 광역 교통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SOC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토대다. 도내까지 연결되는 GTX 노선이 수십년 동안 위축돼 있던 지역 발전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6일 (금)

사설/칼럼 25면

선거구 획정 지연,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행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캄캄하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달 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일정대로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42일 전 확정된 20대 총선, 39일 전 확정된 21대 총선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려 9개월

이나 지체된 셈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정치신인들과 국민이다. 정치신인들은 기존 정치

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즉, 태생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만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선거구가 갑자기 바뀐다 하더라도 전자에 비해 유리하다. 또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 접촉을 늘려 나갈 수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그럴 계기마저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

여야는 조속히 지역의 생활권, 문화, 정서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선거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강

원특별자치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에서부터 24년 동안 다섯 번 변했다. 특히 15대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선거 때마다 이곳저곳 붙여지며 ‘대의 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제군은 15·16대에 속초-고성-양양과 붙어 있다가 17대에 철원-화천-양구와 묶이더니 21대에서는 다시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돌아왔다. 태백-정선은 17~20대

까지 영월-평창과 묶여 있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동해-삼척과 붙었다. 홍천-횡성도 마찬가지다. 15대부터 19대까지 20년 동안 하나의 선거구였으나 지난 선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지난달 12일부터 시작

공천 갈등 불거지면 선거구 획정 논의 ‘뒷전’

여야, 생활권·정서 등 고려 조속히 결론 내야

거에서 각각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쪼개지더니 21대 선거에선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재편성됐다. 18개 시·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 당하며 여기저기 쪼개지고 붙여지는 수모를 당했다. 각 당의 공천 갈등이 불거지면 선거구 획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가 줄속으로 정해지는 것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을 헛갈리게 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사안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과장이 커 단칼에 무 자르듯 해결될 수 없다. 이러다간 더 왜곡된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